

보도자료



· 작성부서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시황분석팀		
· 담당자	팀장 : 강병모 (☎3774-8530), 팀원 : 이길원 (☎3774-8521)		
· 배포일	2015. 12. 30 (수요일)	· 배포부서	홍보부(☎ 3774-4082~4085)

※ 이 자료는 배포 즉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5년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결산 (12/30일 15시 기준)

주요 내용

◆ KOSPI는 美 금리인상 등 대외불안에도 상승세 마감(연간 +2.4%)

- 4년 만에 해외증시와 디커플링 완화 ⇨ G20 국가중 지수 상승률 8위
- 시가총액은 1,243조원으로 年단위로 사상 최대 기록
- 일평균 거래대금도 5.4조원으로 4년 만에 증가세 전환
- ※ KOSPI 추이 : (최고) 2,173p(4/23), (최저) 1,829p(8/24), (12/30) 1,961p

① (주가지수) KOSPI +2.4%, 1년 만에 상승세 전환('14년 : -4.8%)

- (중소형주 주도) 대형주 -0.9% < 소형주 +20.1% < 중형주 +21.1%
- (해외 비교) KOSPI 상승률은 G20국가 중 8위*로 큰 폭 개선('14년 19위)
 - G20 중 10개국만이 연간 기준 상승세 示現(최고 : 아르헨티나 +36%)
 - * ('11년) 7위 → ('12년) 13위 → ('13년) 14위 → ('14년) 19위 → ('15년) 9위

< 2015년 G20 국가, 주요 지수 등락률 순위 (단위 : %, 12/29일 기준) >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아르헨 +36.4	이태리 +13.9	독일 +10.8	중국 +10.2	프랑스 +10.0	일본 +8.8	EU +5.3	한국 +2.7	남아공 +2.4	멕시코 +0.6

② (주요 이슈) 上高下低(4월 2,100선 → 8월 1,800선)

- (상반기) 超 저금리 · 초이노믹스 부각, ECB 양적완화 등에 따른 유동성* 장세 영향 2천선 상회 마감(6월말 : 2,074p, 전년비 +8.3%)
 - * 외국인투자자는 상반기중 8.5조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
- (하반기) 글로벌 성장둔화에 따른 국제유가 약세, 중국 경기 · 증시 불안 및 9년반 만에 미국 금리인상 등 부담으로 1,800선 위협(최저 : 1,829p, 8/24) ⇒ 연말 韓 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낙폭 만회
 - * 외국인투자자는 하반기 12.1조원 순매도로 연간기준 4년 만에 매도세(△3.6조원)

③ (시가총액) KOSPI 1,243조원, 작년대비 51조원 증가

○ 공모시장 활성화 등으로 연간 기준 사상 처음 1,200조원대 진입

- (중소형주 부각) 대형주가 915조원으로 24조원 증가에 그친 반면, 중·소형주는 199조원에서 47조원이 증가한 246조원 기록
- ※ 중·소형주는 시총비중에서도 전년 대비 3%p 증가하여 20% 차지

< KOSPI시장 大·中·小 업종별 시총 금액·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14년말	'15년말	'14년말	'15년말	'14년말	'15년말
890.6(74.7)	914.5(73.6)	150.3(12.6)	183.9(14.8)	48.6(4.1)	62.4(5.0)

○ (자본화율) 금년말 총 시가총액(1,444조원, 코스닥시장 202조원 포함)은 국내총생산('14년 1,485조원 기준) 대비 약 97% 수준('14년말 94%)

④ (일평균 거래규모) 거래대금(5.4조원), 거래량(4.6억주)

- (거래대금) 5.4조원으로 작년 4.0조원 대비 1.4조원 증가(35% 증가)
- (거래량) 전년도 2.8억주에서 금년 4.6억주로 64% 증가

⇒ 이는 가격제한폭 확대, 액면분할 활성화 노력(액면분할사 : '14년 6社, '15년 9社) 및 정부 배당 활성화 정책 등에 기인한 개인거래 활성화(개인거래 비중 : 45% → 54%)에 주로 기인 분석

⑤ (업종별 등락률) 의약·내수주 강세(대형 경기민감주는 약세)

○ KOSPI 산업별 지수(21개)는 의약품(+88.1%), 화학(+44.7%) 및 음식료(+36.2%) 등 11개 지수가 상승(평균 +23.8%)하였으며, 운수창고(-28.5%), 철강금속(-21.0%) 등 10개 지수가 하락(평균 -11.6%)

- (차별화) 電車·철강 등 대형 경기민감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의약품(나스닥바이오 지수 +13.0%), 화장품(對中 수출 부각) 및 내수주(내수 활성화 정책 집중) 등에 투자 관심 집중

○ KRX 섹터지수(12개 기준)도 건강(+102.6%), 에너지화학(+42.2%) 등 4개 지수가 상승하고 조선(-38.3%), 운송(-30.8%) 등 8개 지수는 하락

⑥ (투자자별) 외국인·기관·개인 순매도 vs. 기타법인 순매수

- 외국인·기관·개인 ‘주요 수급 3주체’는 모두 매도세로 일관, 기타법인(+5.3조원)만이 유일하게 순매수
 - (외국인) 유로존위기 이후 3년간 순매수(‘12~‘14, +25.7조원), 금년 4년 만에 대규모 순매도(-3.6조원)로 전환하며 하반기 지수 약세 주도
 - (기관) 연기금의 6년째 순매수(+9.1조원) 불구, 투신 8년째 순매도(-5.0조원) 및 2년째 금융투자 매도세(-2.4조원) 등으로 2년째 순매도(-0.5조원)
 - (개인) 7년째 증시 이탈(-0.4조원) 지속 (다만, 순매도 규모는 7년래 최저)
 - (기타법인) 삼성전자 등 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 증가로 7년 만에 순매수
- * KOSPI시장 자사주 매입 규모(신청금액 기준) : ‘14년 11.8조원, ‘15년 15.6조원

⑦ (주요 그룹별) 10대 그룹 시총 678조원(‘14년 대비 -41조원)

- (시총비중) KRX 전체 시총(1,444조원)의 47.0%로 ‘14년 54.0% 대비 7.0%p 감소(3년째 감소세 : ‘12년 58.4조원, ‘13년 56.2%)
 - 10개 그룹 중, LG그룹 등 4개 그룹의 시총이 증가
 - (증가) LG(+15.3조원), 롯데(+3.8조원), GS(+2.3조원), 한화(+4.7조원)
 - (감소) 삼성(-20.9조원), 현대차(-14.9조원), SK(-15.1조원) 등
- < 금년 10대 그룹의 시총 증감 추이(공정위 발표4/1 자산총액 順) (단위 : 조원) >

년도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POSCO	GS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2015	327.0	106.7	75.7	83.0	25.0	18.4	11.7	8.4	4.6	17.4
2014	347.9	121.6	90.8	67.7	21.2	29.7	9.4	10.8	6.9	12.7
증감	-20.9	-14.9	-15.1	+15.3	+3.8	-11.3	+2.3	-2.4	-2.3	+4.7

⑧ (기업공개) ‘14년 7社(3.5조원) → ‘15년 16社(2.4조원)

- 상장활성화 정책 등 주효 평가, 2년째 기업공개 건수 증가

⑨ (증시자금) 국내 주식형펀드(63.4조원)는 4년 만에 순유출세 진정, 고객예탁금은 21.4조원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 수준 증가

- 국내 주식형펀드(설정원본) : (‘14년) 63.4조원 → (‘15년) 63.4조원, (-)
- 고객예탁금 : (‘14년) 16.1조원 → (‘15년) 21.4조원, (+5.3조원)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